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보도
2024.11.8.(금) 석간
배포
2024.11.7.(목)
**담당
부서**
**조사1국
조사총괄팀**
책임자
팀 장
장정훈 (02-3145-5582)
**조사2국
조사1팀**
책임자
국 장
장창호 (02-3145-5650)
담당자
팀 장
이장준 (02-3145-5653)
**조사3국
조사1팀**
책임자
국 장
최상두 (02-3145-5100)
담당자
팀 장
장경필 (02-3145-5106)

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

□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,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

-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 분	2022년		2023년		2024.9월		계	
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
코스피	13	20	11	3	6	0	30	23
코스닥	32	7	35	7	29	2	96	16
코넥스	1	0	6	3	0	0	7	3
합계	46	27	52	13	35	2	133	42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,

-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(10개사)*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.

* 교육대상 회사는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 협회를 통해 사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(8월)하여 선정

□ 상장사들은 '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'를 참고하시어,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·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1

상장사 임직원 대상 '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' 실시

① 도입배경 및 그간의 교육현황

-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
 -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교육*을 실시중
- * '22.8~9월 중 18개 상장사 교육 (방문 5사, 비대면 13사)
'23.10~11월 중 13개 상장사 교육(방문 13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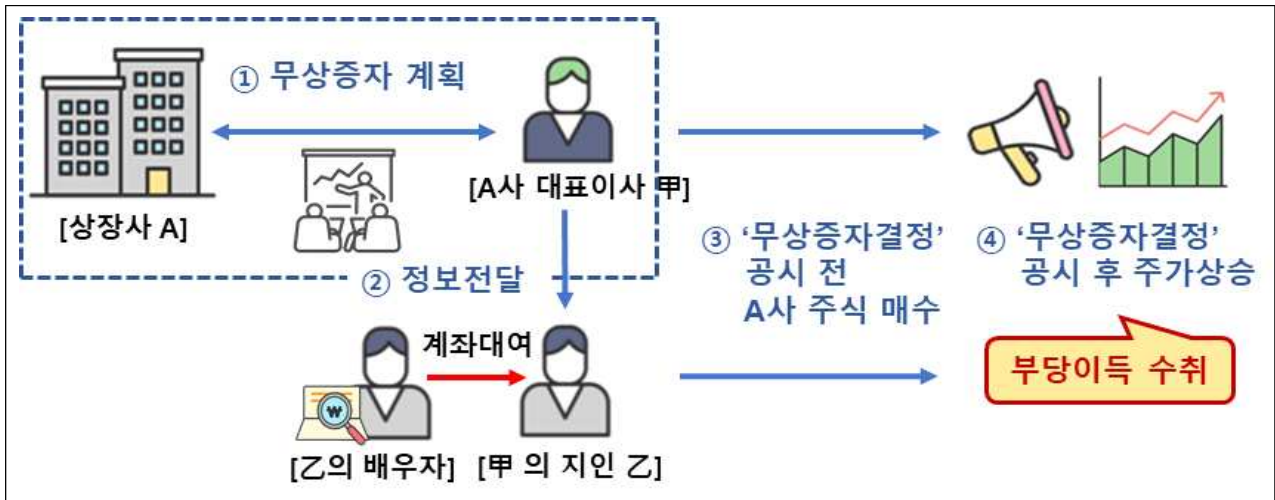
② '24년 실시계획

-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하여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(8월)하였으며,
 -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,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(코스피 4개사, 코스닥 6개사)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
- ※ 교육인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「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」의 교육 항목으로 포함하여 실시*
- * 광주·대전 : '24.6.11.~6.12. 旣 실시
부산·대구 : '24.9.25.~9.26. 旣 실시
서울·판교 : 4분기 중 실시 예정
-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,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여
 -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,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

2

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

① 미공개정보 이용 (중요정보 전달 및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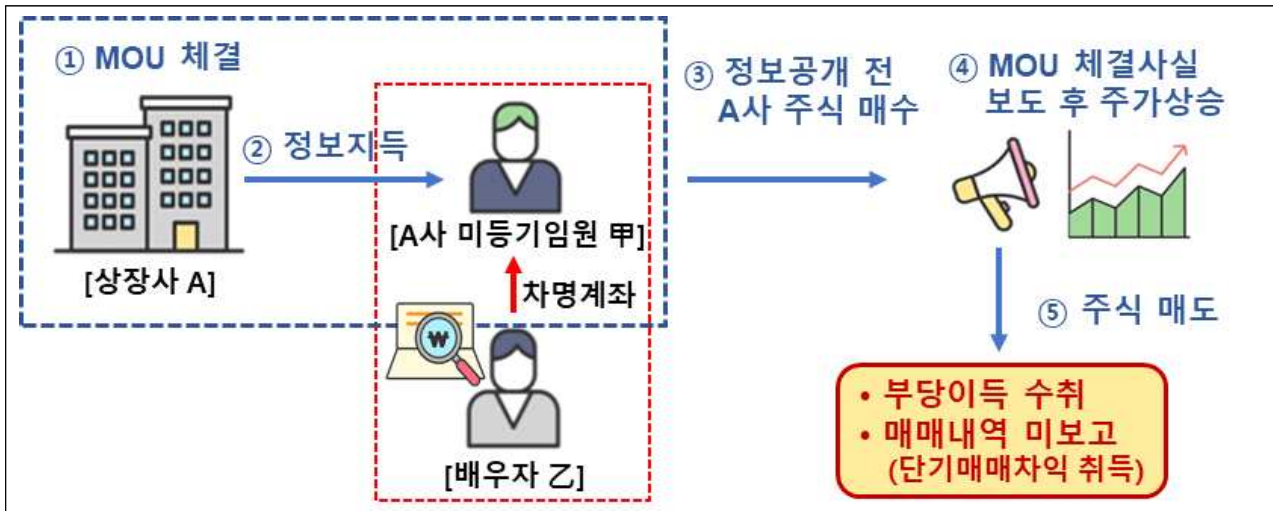


- 상장사 A사 대표이사 甲은 A사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,
 - 동 정보가 공개되면 A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
 - 또한 甲은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乙에게 A사의 '무상증자결정'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으며,
 - 乙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
- 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
◆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로서,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
- 한편 '무상증자결정' 정보는 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'에 해당할 수 있음

② 미공개정보 이용 (중요정보 이용) ·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(단기매매차익 취득)



- 상장사 A사 미등기임원 甲은 A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‘양해각서(MOU) 체결’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*를 직무상 지득하고

* 본 건에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‘호재성 중요정보’에 해당

-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수취

- 甲은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되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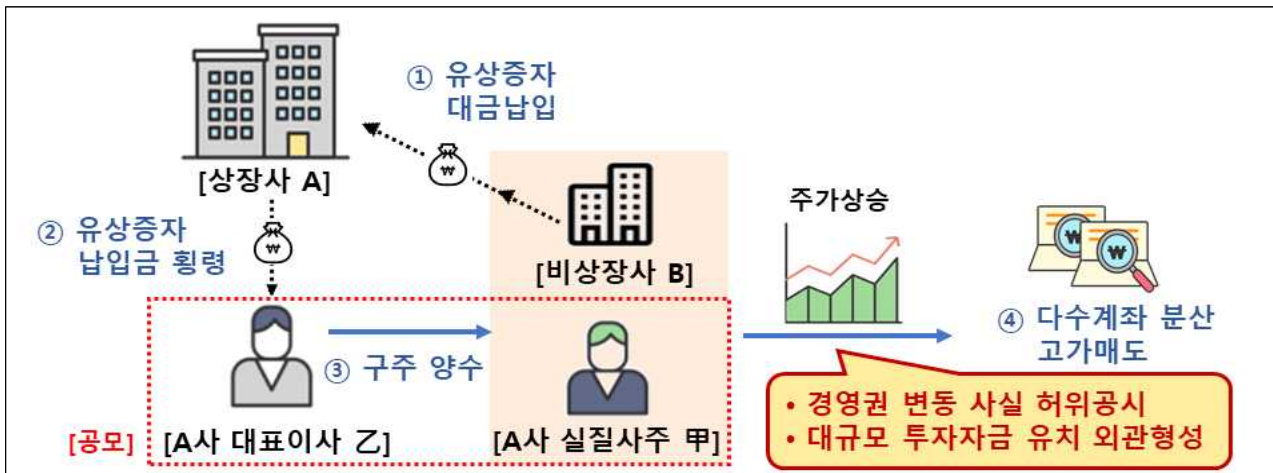
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,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(자본시장법 제173조) 혐의로 조치(甲)

◆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
◆ 임원 및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 취득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

※ 등기임원은 물론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미등기 임원도 내부자(임원) 범주에 포함되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해당

③ 부정거래 (허위 공시)



- 甲은 乙(A사 대표이사, 최대주주)과 공모하여 A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B사(甲 소유 비상장사) 명의로 참여하여 A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뒤,
 -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A사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A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
-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무자본 M&A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(乙→甲)되었음에도 甲·乙은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함으로써 A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,
 - 甲이 乙로부터 양수한 A사 주식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고가에 장내매도하여 이익을 취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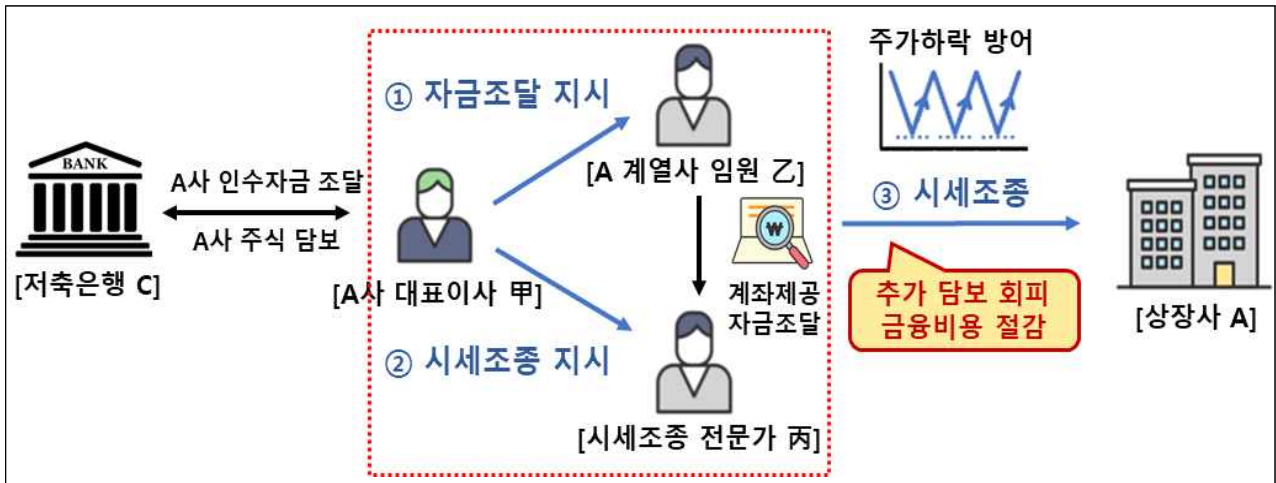
➡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8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
◆ 자금사용 목적 및 경영권 참여 목적 여부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 기재한 것은 '주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'에 해당

- 한편,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하는 행위는 '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'에 해당할 수 있음

※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**실질사주**를 **내부자(임원) 범주**에 포함시키고 있어 **불공정거래 규제대상**에 해당

④ 시세조종 (시세고정)



- 甲은 상장사 A사 주식을 담보로 C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A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, A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
 - A사 계열사 임원 乙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乙 명의 증권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丙(시세조종 전문가)에게 제공 하도록 지시하였으며,
 - 丙은 甲의 주도에 따라 고가매수, 시·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
- 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6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·丙)

◆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 하는 행위는 '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'에 해당하며,

- 추가담보 납부 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액은 불공정거래의 동기 및 목적이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부당이득에 포함